

2026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광주문화방송(주)

1. 회의 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 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 8	8.19	회의실	11/15	5	1	17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명규·박봉순·박찬호·설제학·안유성·양지현·유동국·이해경·조명근·한지혜·황풍년 위원(11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황동현(경영전략본부장), 주현정(뉴스팀장), 홍진선(콘텐츠팀장), 서준배(디지털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광고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 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0	9	4	0	0	13	0	13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3	0	0	13

다. 의견제시(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지역 연관성이 높고, 지역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 보도 필요	<뉴스데스크> 2호선 예산 악재에 인사 뒷말까지(9.2), “예산 없다” 방치된 무늬만 스쿨존(9.4), <뉴스투데이> 검증 없는 생활인구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나(9.2), 검증 없는 생활인구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나(9.2) 등 방송 조치	'26.8
"	통합특별시가 지역민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바람	<시사용광로> 통합특별시 두 달, 전남광주는 지금(9.3), <뉴스데스크> 내년도 19조원··유례없는 국비 확보(9.2) 등 방송 조치	"
"	지역의 다양한 음식 문화사업에 관심을 바람	<뉴스투데이> 영암 무화과 올해도 성심당 ‘무화과시루’로(8.20), 광주시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참가자 모집(8.23),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1인 최대 10만원 환급(8.31) 등 방송 조치	"
"	지역민의 생활과 밀착한 뉴스를 기대함	<뉴스데스크> 제때 치료받을 권리 여전히 멀기만 한 전남(8.30), 광주 서구 종합병원, 일반병원으로··진료과 축소(8.31), KTX, SRT 통합하고, 광역급행버스 달리고(9.1), <뉴스투데이> 75ℓ 종량제봉투 없애고 3ℓ 신규 제작(9.10) 등 방송 조치	"
"	지역 정치 현안을 정면으로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이익의 관점에서 주제를 다뤄주길 바람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조치	"
"	‘대만 이름 지운 광주비엔날레’ 보도 이후 전시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목소리 등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하나의 중국 존중” 대만 명칭 논란 사과(8.31), 중국 “파빌리온 철수” 광주특별시에 공식 전달(9.2), 중국, 광주전남 국제행사 방문 일정 잇따라 보이콧(9.3), “네 삶을 바꿔야 한다” 광주비엔날레 개막(9.4), 대만 파빌리온 ‘지정학적 불안을 작품으로’(9.8), <뉴스투데이>	"

		“광주가 어떤 도시인데” 예술인이 지킨 예술(8.27), ‘대만’ 전시 준비 시작 파행은 피했지만(8.28) 등 방송 조치	
”	혁신도시 시즌 2 관련, 정주 여건 개선, 상권 활성화, 현장 목소리를 비롯해, 지역의 가능성과 상생 발전 방안 제시 바람	<뉴스투데이> 2차 이전 발표 연기에 노심초사(8.28), 2차 공공기관들 모셔오자(9.4) 등 방송 조치	”
”	이진숙 의원 발언 관련, 공인의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역할 바람	<뉴스투데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극우 말잔치 판 갈아줬다… 제명해야”(8.20), 반복되는 5.18 왜곡 “망언하면 ‘정치적 파산’ 시켜야”(8.21), <뉴스데스크> 5.18단체 ”개헌 정쟁 도구 안돼…대안 논의하라“(9.9) 등 방송 조치	”
”	반도체 기업 유치, 무안공항이나 광주공항 문제, 버스 노선 개편 문제 등 중요한 현안이 다수 존재함. 시민이 이에 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데 행정 관련 정보 제공 필요	<뉴스투데이>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반도체 배후단지로 조성(9.6), <뉴스데스크> “군 공항 이전 부지 연내 확정”…남은 절차는?(8.31), 국토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검토(9.8), 멈춰선 무안공항 서남권 관광 차질 빛나(9.10.)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백금열의 뉴스모타모타 코너, 정치적 논평 성격 코너 제고 필요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남구 인권평화문화제 현장 연결 시 오디오 잡음이 간혹 발생, 유의 필요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중앙방송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 발굴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광주를 뛰게 하는 남자(8.26), 너와 ‘같이라면’ 따뜻한 한끼(9.2) 갯벌에서 놀자 무안황토갯벌축제(9.8), 추석에는 역시 나주배!(9.10) 등 방송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독립운동가 후손의 처우 개선, 체계적인 국가 관리 프로세서의 필요성 등 관심 바람	<뉴스투데이> 후손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훈장(8.19),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역사의 전환점으로”(9.9) 등 방송 조치	”
합계		13건	

라.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 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중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지역 연관성이 높고, 지역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 보도 필요	지역성과 시정 반영은 발제의 중요한 기준점임. 지역 발생 이슈는 물론 수도권 뉴스의 로컬화에도 주력하고 있음	○		
"	통합특별시가 지역민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바람	단순한 행정 통합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와 경제, 현장 변화를 날카롭게 짚는 것은 물론 이 과정이 통합 시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음	○		
"	지역의 다양한 음식 문화사업에 관심을 바람	지자체의 관련 행사나 사업은 물론 음식문화와 관광산업 등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음	○		
"	지역민의 생활과 밀착한 뉴스를 기대함	지역민의 생활에 밀착하고 유익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보도하겠음	○		
"	지역 정치 현안을 정면으로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이익의 관점에서 주제를 다뤄주길 바람	<시사용광로> 8월의 주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나주로 에너지, 반도체, 농협 등이 유치돼야 한다는 내용이었음. 민주당 전당대회와 호남 정치, 청년정책 및 버스노선 개편 등 지역민의 필요와 지역발전 중심으로 방송함	○		
"	‘대만 이름 지운 광주비엔날레’ 보도 이후 전시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목소리 등 보도 바람	광주MBC의 첫 보도 이후 국내는 물론 세계적 이슈가 되었음. 중국 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미 있는 아젠다 세팅이었다는 판단이며,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음	○		
"	혁신도시 시즌 2 관련, 정주 여건 개선, 상권 활성화, 현장 목소리를 비롯해, 지역의 가능성과 상생 발전 방안 제시 바람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 상생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	이진숙 의원 발언 관련, 공인의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역할 바람	해당 발언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반응을 적극 다루고, 5.18 평화가 없도록 적극적인 감시를 하겠음	○		
"	반도체 기업 유치, 무안공항이나 광주공항 문제, 버스 노선 개편 문제 등 중요한 현안이 다수 존재함. 시민이 이에 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데 행정 관련 정보 제공 필요	지역민의 관심사가 높고, 지역발전에 영향이 큰 현안에 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보도하겠으며, 특히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백금열의 뉴스 모타모타 코너, 정치적 논평 성격 코너 제고 필요	시청자 참여가 활발한 코너 중 하나로 댓글 참여가 많고, 인기가 좋음. 시청자에 따라 일방적일 수 있는 논평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균형을 잘 잡도록 제작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남구 인권 평화문화제 현장 연결 시 오디오 캡음이 간혹 발생, 유의 필요	LTE 현장 연결은 현장성이 강한 현장에서 방송을 함. 코너의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유의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중앙방송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 발굴 바람	제작진이 공을 많이 들인 코너임. 광주의 야간 러닝을 다루기도 했고, 북구에서 만든 쉼터에서 라면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야기 등을 다루기도 함. 관심을 가지고 소재를 발굴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독립운동가 후손의 처우 개선, 체계적인 국가 관리 프로세서의 필요성 등 관심 바람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고, 후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6년 8월)

일 시		2026년 8월 19일(수) 17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 원 회	김명규 · 박봉순 · 박찬호 · 설제학 · 안유성 · 양지현 · 유동국 · 이해경 · 조명근 · 한지혜 · 황풍년 위원(11명)		
	회 사	김낙곤 사장,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주현정 뉴스팀장, 홍진선 콘텐츠팀장, 서준배 디지털본부장(5명)		

■ 회의 내용

- 황풍년 위원장 : -날씨가 무덥고 여름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반도체 공장, 군공항 이전, 의대 설립 등 굴직한 지역 현안이 많은 가운데 광주MBC가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는데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지역민의 바람을 대변하여 견제와 균형을 잘해주리라 생각한다. 먼저 사장님 말씀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한 달 만에 뵙게 됐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더운 휴가철이고 바쁜신 가운데도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은 방송본부장이 참석하지 못했다. 새롭게 한신구 국장을 본부장으로 지명하고, 임명동의제 절차가 남아 있다. 이게 마무리되면 9월 회의부터는 참석하도록 하겠다. 광주MBC는 크고 작은 지역 현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10월에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와 영산강그란폰도, 11월 김치의 날에 열리는 대한민국 김치대전과 김장문화제 준비가 한창이다. 시민 1,122명이 김장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김장이라는 공동체 문화를 5.18민주광장에서 재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이나 보도는 물론이고 광주MBC가 마련한 다양한 행사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황풍년 위원장 : -주요 업무보고를 해달라.
- 주현정 뉴스팀장 : -뉴스팀 업무보고를 드리겠다. 먼저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선호도, 통합시 출범 한 달 시장-교육감 평가, 지역 현안 등 여론조사를 광주문화방송, 뉴시스, 무등일보 3사 합동으로 실시했다. 7월 중순 설계를 거쳐 7월 말 조사에 착수하고 8월3~4일 양일간 보도했다. <뉴스데스크> 방송 2시간에 앞서 여론조사 결과 리포트를 온라인에 선 공개했고, 조회수는 30만 돌파했다. 장윤기 수사, 배재고 5.18 조롱 논란, 극한 더위 등 사회 분야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장윤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자신들의 보완 수사 성과를 강조하며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 부실 수사를 지나치게 부각하기도 했다. 뉴스팀은 검찰이 이 사건을 검경 수사권 주도권 경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이에 경찰의 허술한 수사를 꼬집는 보도와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보완 수사 성과 내세우기 관련 발제를 꾸준히 이어갔다. 실제로 7월 한 달간 장윤기 수사 관련해 단독 리포트만 10차례 보도했으며, MBC <뉴스데스크>에도 15차례 관련 리포트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통합시, 시교육청 출범 관련 집중 보도, '광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집중보도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김민석 대표의 호남지역 지원 약속에 관한 보도를 예정하고 있으며, 통합시 첫 조직 개편, 광주권 5개 자치구 '시' 전환 추진, 시내버스 노선 공청회 등 광주특별시 출범 후 관련 아이템을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와 광복 81주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등 주요 기념일 관련 내용을 비롯해, 반도체 산단 조성 및 군공항 이전, 9월 5일 광주비엔날레 기획보도도 준비하고 있다.
- 홍진선 콘텐츠팀장 : -콘텐츠팀에서는 8월7일 TV 부분 개편을 시행했다. <테마기행 길>이 전국 편성되는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방송한다. 담양 편 촬영을 8월12~13일 마쳤으며, 방송은 9월11일이다. 다큐멘터리 <STING>을 계속 제작하고 있다. 전국대회 촬영을 8월12~13일 충북 진천에서 진행했다.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빛나는 초대석에 안도걸 국회의원, 이봉렬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연했고, 회의 인물에는 강수훈, 윤민호, 박수민, 장성해 의원이 출연했다. 구례 모기장 영화음악회, 보성 율포바다, 담양 유럽수국축제, 나이트러닝, 남도미식 코스요리 등 아이템을 제작해 방송하기도 했다. <시사용광로>에서는 8월6일 혁신도시 시즌2, 나주의 기회와 과제 편에 윤병태 나주시장, 조신상 혁신도시정책연구원 부원장, 유창

호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교수가 토론했고, 8월13일 ‘호남대전’ 앞둔 민주당 전당대회, 향후 정국은? 편에는 공진성 조선대 교수,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8월20일 청년 정책은 청년을 구하고 있나? 편에는 장성해 전남광주통합시의원,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출연해 토론하기도 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다큐 <STING> 해외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기간에서 일본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다큐멘터리 <5.18 어매> 제작 및 추가 촬영이 예정돼 있다. 여수 섬 박람회 홍보유치 및 여수시장 방송 섭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 서준배 디지털본부장 : -디지털제작팀에서는 ‘광주특별시민을 위한 반도체 특별 과외’ 유튜브용 콘텐츠를 매주 토요일 업로드 했다. ‘뉴스 편집 및 업로드 자동화’를 주제로 내부 교육을 시행했고, TV 뉴스 녹화본을 AI 기술을 적용해 뉴스 종료 후 20분 내외에 업로드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 콘텐츠로 <전설의 타이거즈>를 제작하고, 뉴스 콘텐츠 큐레이션, 채널 강화를 위한 콘텐츠 업로드를 계속하고 있다. 암극복 프로젝트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편을 제작 중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광주특별시민을 위한 반도체 특별 과외 유튜브용 촬영이 8월 27일에 있을 예정이며, TTS 음성 생성형 AI를 적용해 목소리를 학습시킴으로써 라디오 뉴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타 제작으로 장성군 ‘필암서원’ 다큐, 전남광주대학 협의회 ‘반도체/AI 지역인재 양성’ 공동캠페인 등이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으로 방송 테이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을 12월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 황풍년 위원장 : -업무보고 감사드린다. 그럼,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김명규 위원 : -백금렬의 뉴스 모타모타 코너에 관한 의견이다. 광주MBC는 <빛나는 나의 도시>를 공식적으로 “지역 초밀착 매거진 프로그램”, 즉 광주·전남의 일상과 지역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 별도로 <시사용광로>라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가 <빛나는 나의 도시>를 일반적인 지역 생활·문화 교양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백금렬 씨는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현해온 인물이다. 2026년 인터뷰에서도 촛불문화제 사회와 공연 활동 등이 소개됐고, 현재 <빛나는 나의 도시>에 패널로 출연해 뉴스를 전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인이 그런 활동이나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뉴스 모타모타’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느냐다. 시청자가 느낀 문제의식은 방송편성 측면에서 꽤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다음 네 가지가 반복된다면 문제 제기의 근거가 상당히 강해진다. 첫째, 정치적 사안을 다루면서 특정 진영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뉴스만 반복적으로 선택하는지 둘째, 사실 전달보다 진행자의 평가·풍자·비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셋째, 반대 관점이나 다른 해석을 거의 소개하지 않는지 넷째, 무엇보다 시사·논평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 생활·문화 중심의 매거진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정치적 논평이 반복되는지 등이다. 광주MBC 스스로 <빛나는 나의 도시>를 지역의 생활과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TV 속 정보’를 보면 여행·맛집·디저트·야구장 음식 등 생활 정보 콘텐츠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런 프로그램 안에 정치적 논평 성격이 강한 코너가 들어가면, 시청자는 “왜 이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치적 관점을 계속 접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박찬호 위원 : -아침에 주로 광주MBC 뉴스를 보고 있다. 다른 지역 MBC 방송사의 내용을 많이 다루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광주지역과의 연관성이 높은 뉴스들이나 지역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통합특별시가 되었는데 아직 조치들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느낀 불편한 점을 하나 제보하고자 한다. 전남광주 지역이 전체적으로 통합특별시로 하나의 광역 행정구역이 되었는데 택시비에 대해서는 지역 통합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광주송정역으로 택시로 이동할 때 장성군 지역을 지나가는 길이 있다. 이럴 때 광주와 전남이 나누어져 있으면 지역할증을 받는 것이 정당할 수 있지만 광역행정 구역상 하나로 되어서 지역할증이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전히 40% 할증이 붙어서 택시 요금이 부가되는 것 같다. 확인해서 어디까지 지역할증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를 제안한다.
- 설재학 위원 : -7월 30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의 상황과 민주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주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물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에서 행정적인 부분이 우선되고 있는 점은 당연하지만, 통합된 조직의 구성, 경제적인 부분의 배분, 군공항 이전과 같은 이해관계로 인해 자칫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합의를 이루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정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적으로 동감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도입된 선거 방식이 결과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다. 앞으로도 통합특별시가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 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방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방향성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안유성 위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이 푸드 도시 관련하여 K푸드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이 내용을 해외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심도 있게 접근하면 좋을 듯하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음식 문화사업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
- 양지현 위원 : -8월12일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남구 인권평화문화제 현장을 연결했다.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양림동 현장의 의미와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소녀상의 역사적 배경을 짚어주어 단순 행사를 넘어 교육적 가치를 더했다. 전반적인 흐름은 매끄러웠으나 현장 중계 특성상 오디오 잡음이 간혹 발생했다. 이런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구례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도 소개했다. 무더운 여름밤 산사에서 열리는 이색 문화 축제를 감성적인 영상과 시민 인터뷰로 담아내어 프로그램의 마무리에 편안한 힐링을 선사했다. 스튜디오와 현장, 심층 정책과 생활 정보의 안배가 우수했다. <빛나는 나의 도시>는 광주·전남의 사람과 공간, 문화와 일상을 가까이에서 보여주며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공간이 있구나'라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 방송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앙방송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발굴해주길 바라며, 생방송과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해 시청자와 소통하려는 점이 긍정적이다.
- 유동국 위원 : -뉴스에서 천홍희 기자 '이 대통령 2028년까지 군공항 기능 이전', 박승환 기자 '메가특구법, 2028년 호남 전력 공급'을 비롯해 '초박빙 민주당권 호남이 승부처', 이정호 기자 '불길에 폭염까지, 소방관 안전도 비상', '정무부시장 시민 추천제의 조례상 근거와 절차 논란',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신설 계획 제출 요구' 등 15분의 뉴스 시간대에 총 9개 꼭지의 뉴스가 진행되었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치·사회·경제 등 다양한 소식을 균형 있게 전달하며 지역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폭염 속 소방관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 보도는 현장성과 공감성이 높았다. 후반부에는 정책 뉴스만 계속 이어가지 않고 '광주 시내버스 개편'과 같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뉴스도 배치했다. 전국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서인지 15분의 뉴스가 지루하지 않게 시청하게 되는 것 같다. 지역민의 생활과 밀착한 뉴스를 기대한다.
- 이미진 부위원장 : -8월13일 방송한 <시사용광로> '민주당 김민석 vs 정청래, 결국 호남이 결정한다'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인 51만여 명이 호남에 몰려 있어 사실상 전당대회의 분수령이었던 시점에, 지역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할 사안을 정확히 짚어낸 편성이었다. 특히 광주MBC가 공동 의뢰한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해, 전국 매체가 아닌 지역 방송사가 호남 표심을 직접 읽어내는 의제 설정 역할을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른 지역보다 낮은 투표율 문제를 변수로 짚은 대목도 의미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첫째, 논의가 '누가 이기느냐'는 승부 예측에 다소 치우쳤다. 호남이 왜 캐스팅 보트인가를 넘어, 그 표심이 새 지도부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통합특별시 출범 지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균형발전 공약에 대한 후보별 입장 비교-까지 나아갔다면 지역 유권자에게 훨씬 실질적인 정보가 됐을 것이다. 둘째,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을 다루는 만큼 공정성에 대한 시청자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지지 정당이 없는 시청자에게도 '왜 이 사안이 지역 전체에 중요한가?'를 도입부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는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 정치 현안을 정면으로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이 귀한 만큼, 앞으로도 정치공학적인 분석보다 지역 이익의 관점에서 검증하는 편성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이숙영 위원 : -8월18일 '대만 이름 지운 광주비엔날레' 보도는 국제적인 문화행사에서 발생한 논란을 잘 다

렸다고 생각한다. 양측의 입장을 함께 전달해 균형을 맞추려 한 점도 좋았다. 다만 이번 사안을 정치적인 갈등의 관점에만 머물지 않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뤄주었으면 한다. 광주비엔날레는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 작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번 논란이 작품과 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다. 앞으로 개막 이후에도 실제 전시 참여 상황과 작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주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단순한 논란을 넘어 광주비엔날레가 지향하는 예술적 가치와 국제적 역할까지 이해할 수 있는 보도가 있었으면 한다.

- 조명근 위원 : -8월6일 방영된 <시사용광로> ‘혁신도시 시즌2, 나주의 기회와 과제’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를 단순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바라본 점이 좋았다. 나주 혁신도시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본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패널분들 중 “단순한 이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한 발언은 인상적이었으며,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혁신도시의 완성도 없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되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집적된 혁신도시의 특성을 활용해 에너지산업과 미래산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방향도 의미가 있었다.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발전을 나주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와 전남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인재 육성,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등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 아울러,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기업의 성장 방안도 지속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 정책 관계자의 의견뿐 아니라 실제 거주 주민, 청년, 소상공인, 지역기업 등의 현장 목소리를 함께 담는 후속 방송도 기대한다. 이번 방송은 지역의 현안을 단순히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주의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주 좋았다. 앞으로도 광주MBC가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공론의 장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란다. 지역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시의성 있게 다룬 좋은 프로그램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가능성과 상생 발전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 한지혜 위원 : -8월18일 방송한 <빛나는 나의 도시> 백금렬의 뉴스 모타모타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율성과 이육사 시인의 삶을 다루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의 이면과 역사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전달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또한 정율성 등 역사적 인물을 둘러싼 이념적 공방이 과열된 현시점에서, 방송이 중심을 잡고 독립운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짚어준 점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나아가 이번 기획이 일회성 특집에 그치지 않고,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처우 개선과 체계적인 국가적 관리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건의한다. 잊힌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고귀한 책무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에 대해 날카롭고 객관적인 비평을 가한 점은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로 평가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언론인 출신이자 정치인의 직책을 맡고 있는 이진숙 의원의 이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대중에게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방송사 측에서는 이러한 정치인의 발언을 비평할 때, 표현의 자유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발언의 객관적 정확성과 공적 신뢰도를 검증하는 정밀한 팩트 체크 과정을 시청자에게 함께 제시해 주면 좋겠다. 공인의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비평 프로그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 황풍년 위원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언론 대부분이 갈등과 충돌의 현상만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대 신설 유치 문제, 조직개편 등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이 충돌하는 현상을 따라가는 보도를 하고 있고, 대체로 이 모든 현상의 원인으로 통합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편한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합을 둘러싼 심

각한 대립과 갈등을 사안별로 깊숙하게 파고들어 근본적인 해법에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갈등과 충돌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중재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종전근 무지 보장'의 특별법 조항은 조직 개편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로막고 있으며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수백 km를 이동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견해에서 보면, 아무리 멀어도 100km 안팎의 자기 지역 내의 전보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수하는 특별시 공직자들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견해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 조직 개편의 난항과 갈등을 무조건 통합시장의 리더십 부재로 뭉뚱그려 비판하기보다는 특별법 개정 등을 포함한 폭넓은 대안도 언론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시대적인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산업 단지 조성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고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국가사업이 요동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통합된 지역이 하나가 되어 공동의 미래를 고민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권역별 갈등이 제로섬 게임처럼 벌어지면서 통합특별시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정서가 무너지고 있다. 800조를 넘어 수천조까지 확장될 수 있는 투자는 그 파급효과가 모든 특별시 영역 안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해관계를 놓고 지나치게 다투며 감정적 충돌로까지 비화, 궁극적으로 통합된 공동체의 미래라는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그동안 광주문화방송은 영산강 살리기, 무등산 사랑 등 지역사회에 담론을 건강하게 이끌어 온 캠페인을 해왔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뿌리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도 하나라는 서사를 바탕으로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기타 시청자 의견도 올라와 있다. 내용은 현재 광주는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라는 전례 없는 새로운 길을 나아가고 있다. 동시에 반도체 기업 유치, 무안공항이나 광주공항 문제, 버스 노선 개편 문제 등 중요한 현안이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데 시민으로서 그런 의제들에 대해 정보를 접할 길이 많지 않다. 광주MBC가 민형배 시장의 시민 간담회 등을 중계 및 가공하여 해당 정보를 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욱 다양한 행정 관련 정보를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광주MBC가 더 적극적으로 광주시청이나 구청 등에 제안을 보내고, 취재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광주MBC가 언론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위원님들 의견에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길 바란다.

- 주현정 뉴스팀장 : -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성과 시정 반영은 뉴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기도 하다. 지역 발생 이슈는 물론 수도권 뉴스의 로컬화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또 통합특별시가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행정 통합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나 경제를 비롯해 지역민의 삶과 생활에 통합의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보도를 이어가겠다.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명칭 문제는 광주MBC의 보도 이후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중국의 반발이 있지만 여론 형성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위한 원래의 목표를 다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이진숙 의원의 5.18 펌훼 관련은 각계각층의 발언을 다루고, 5.18의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 홍진선 콘텐츠팀장 : -<빛나는 나의 도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 김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새겨들겠다. 시청자들의 댓글 참여가 많고, 인기가 좋은 코너이기도 하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잡도록 노력하겠다. LTE 현장 연결은 현장성이 강해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잘 점검하고 유의하도록 하겠다.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해달라는 양지현 위원님의 의견도 감사드린다. 제작진이 공을 많이 들여 제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지역의 의미 있고 재미가 있는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황풍년 위원장 : -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앞으로도 위원회가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드린다.
- 김낙곤 사장 : -오늘도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해 깊이 있는 지적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셨다. 제시해 주신 의견은 빠짐없이 현업에 전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 끝.